복지이슈 FOCUS
현장공감 경기복지재단
제4호
2020-04
2020. 7.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최조순 연구위원(ehjs11@ggwf.or.kr)
홍서인 연 구 원(sihong@ggwf.or.kr)

목차

Ⅰ.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배경 및 의의
Ⅱ.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특성 분석
Ⅲ.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개선방안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연구진

연구책임 | 최조순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홍서인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 복지이슈 FOCUS는 빠른 복지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주요현안 및 이슈를 발굴하기 위하여 복지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으며,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13 Fax : 031-898-5935 E-mail : ehjs11@ggwf.or.kr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신용자들의 생계위험, 불법 사(私)금융 이용,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추진

○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통해 잠재적 빈곤층이 빈곤으로 전락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 및 긴급대출 사업을 추진

-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의 특성 분석을 통해 향후 사업추진의 개선 및 실효성 확보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의 특성 분석 결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음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개선방안은 ①접근성 높은 신청처 운영을 통한 접근성 향상, ②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대출금액의 다양성 확보, ③대출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④신용등급 개선을 통한 중앙정부의 서민금융제도와 연계 강화, ⑤대상자의 경제적 역량 증진 기반 제공, ⑥소액 자산형성지원 사업 등임

- ①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 등 접근성 증진을 위해 지역 접근성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한 신청처 운영, (가칭)「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신청 체계를 구축하여 접근성 향상
- 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출지원금의 범위를 경기도 긴급복지사업에 준하는 최대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차등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여 긴급한 경제문제를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
- ③「경기도 극저신용대출 플랫폼」을 활용하여 대상자별 대출과정부터 만기상환에 이르는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대상자의 상황 및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 ④재정지원 외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금융·재무 역량관리와 지원 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금융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
- ⑤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기존의 서민금융지원체계에서 배제된 도민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신용등급 상향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기존 서민금융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⑥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의 단기 소액 자산형성사업 추진을 통해 극저신용대출금에 대한 상환 기반 강화 및 기존 서민금융제도 이용 기회 확대

Ⅰ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배경 및 의의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사회통합 및 빈곤퇴치를 위한 정책수단으로 금융포용과 마이크로파이낸스(Microfinance)의 중요성 확산

○ 경제 위기로 급격히 증가한 장기실업자, 소득양극화, 가계부채 증가 등 금융소외층이 금융배제를 당하지 않도록 금융접근성의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

- 저소득층의 금융서비스 접근이 낮아지고 이들에 대한 금융 지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에 부담을 가중시키기 때문

○ 금융포용은 양질의 금융서비스에 대해 보편적 접근을 보장함으로써 제도적 금융시스템 내에 포함시키는 과정을 의미(CCAP, 2011)

- 한국금융연구원(2014)의 연구에 따르면 금융포용의 확대는 저소득층의 소득증가를 통해 소득불평등도를 하락시키고, 금융자산 증가를 통해 경기하락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경제 및 금융전반의 건전성을 개선 가능

○ 마이크로파이낸스는 제도적 금융권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대출, 저축 및 보험 등 소액 금융의 총칭(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en.wikipedia.org/Microfinance)

- 마이크로파이낸스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금융지원 사업은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높여 경제적 자립과 빈곤을 완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며(Hermes & Lensink, 2011) 전세계적으로 확산

■ 한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실업자 등 취약계층이 크게 증가하자, 정부 주도하에 2009년부터 서민금융상품을 도입

○ 정부는 서민금융시장의 기능 부진에 대응하고 서민의 금융접근성 제고 및 금융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민금융상품을 정책적으로 도입

- 글로벌 경제위기로 자활의지는 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경우 제도적 금융이용이 제한되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금융에까지 의존하는 사회적 문제 발생
- 이에 정부는 다양한 형태의 조치를 취하였는데, 가장 핵심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인 미소금융(2009년), 햇살론(2010년), 새희망홀씨(2010년), 바꿔드림론(2011)을 도입(한국금융연구원, 2015)
- 미소금융(Microcredit)은 취약계층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 등을 무담보 · 무보증으로 지원하는 소액대출사업(위키피디아 백과사전, https://ko.wikipedia.org/wiki/미소금융)
- 햇살론은 저신용 · 저소득 서민에 대한 보증을 통해 생활안정을 돕고자 만든 서민전용 대출상품
- 새희망홀씨는 은행권의 서민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기존 '희망홀씨'를 개편한 서민대출상품으로 생계 · 사업자금 등 지원
- 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낮고 소득이 적은 서민이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주는 제도

〈표 1〉 정부차원의 서민금융제도 유형 및 주요 내용

대출명	지원기관	주요내용
미소금융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출연금·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창업·운영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 지원
햇살론	농·수·신협, 산림조합,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농·수·신협 등이 공동으로 만든 금융상품으로 근로자·자영업자 등에 사업운영·창업자금 등 지원
새희망홀씨	신한·우리은행 등 국내 16개 은행	은행권의 서민경제 회복 지원 등을 위해 기존 상품인 "희망홀씨"를 개편하여 2010년 11월에 출시한 서민대출상품으로 생계·사업자금 등 지원
바꿔드림론	국민행복기금	고금리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 지원

자료: 한국은행(2015). 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일부 수정

○ 정부의 서민금융정책은 시장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하여 서민의 금융생활 애로 완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시장에서 신용 획득이 불가능한 빈곤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여 신용을 공급하고 상환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창출기반을 강화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일정한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음(박창균, 2014)
- 대표적인 예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영 개선 자금을 무담보로 제공하는 마이크로크레딧과 혁신적 사고와 방법론을 활용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음

■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정최고금리 인하와 코로나19의 여파로 저신용자 대출비중이 감소하여 금융의 사각지대 발생

○ 2018년부터 적용된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금융권에서 저신용자의 대출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저신용자들은 대출 사각지대로 더욱 내몰리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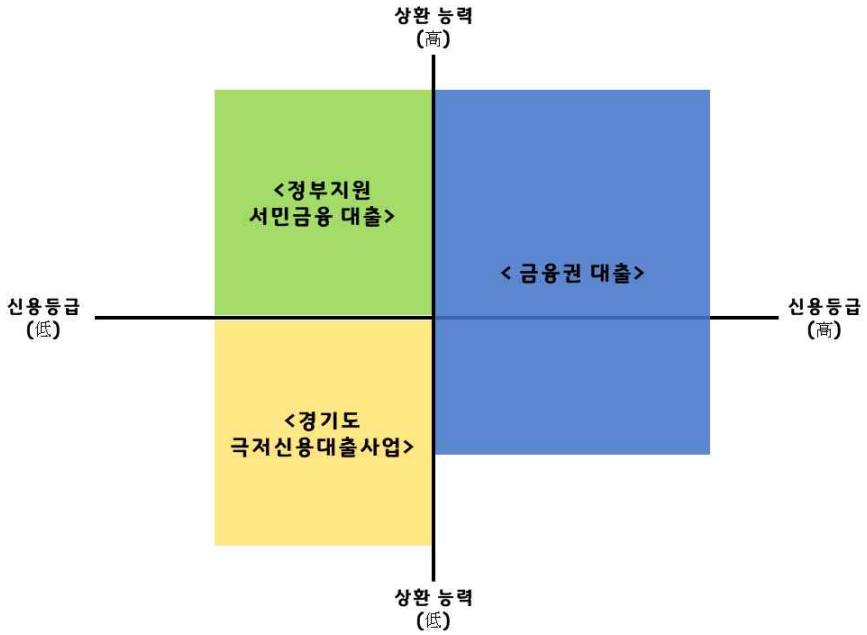
- 대출 심사 시 원가비용과 연체율이 높은 저신용자들의 대출을 승인하는 것은 대출기관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에 대출 승인 심사를 강화하여 대출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서민금융상품은 재원 부족으로 수요를 해결하지 못함
- 김용태 의원이 금융위원회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제로 대부업 신용대출 이용자 수는 2017년 104만5000명, 2018년 81만4000명, 2019년 27만7000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7~10등급의 저신용자 수는 2017년 60만6000명에서 2019년 14만3000명으로 감소하는 등 실제 정책 혜택의 범위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임
- 또한, 법정최고금리 인하로 인하여 제1~2금융권에서 대출이용이 제한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대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 사채시장을 이용하는 사례도 증가(한국경제, 2019.10.08 기사)

■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저신용자들의 생계위험, 불법 사금융이용의 이용,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추진

○ 경기도는 '극저신용대출사업'을 통해 잠재적 빈곤층을 중심으로 빈곤층 전락으로 인한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소액 및 긴급대출 사업을 추진

-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한정된 지원대상과 규모,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시중 은행 등 제1금융권과 기존 서민금융지원 제도에서 배제되어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저신용 도민들이 발생
- 경기도는 신용등급 7~10등급의 긴급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소액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극저신용대출사업'을 추진

〈그림 1〉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정책적 위상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대출'이라는 금융체계에 '복지' 요소가 반영된 통합적·포괄적 성격의 정책 사업임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현행 대출체계에서 추가적인 대출이 불가능한 대상자들에게 긴급한 소액자금의 지원을 통해 급박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여 불법금융 단계로의 진입을 예방

- 대출 이후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경제적 빈곤계층으로의 진입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 및 생활의 안정성 확보를 지원하는 복지서비스 연계도 병행하여 추진하는 등 대상자의 빈곤층 전락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제도 설계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 목적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경기도 도민을 대상으로 긴급재원 지원, 재무상태 및 사회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적·경제적 자립의 기반 마련
- 대상 : 경기도민 중 신용등급 7등급 ~ 10등급
- 내용 : 대상자의 신용등급 및 신청내용에 따라 긴급자금 지원
  - 50만원 : 신용등급 7등급 ~ 10등급이면서 소액 생계자금 필요 신청 시 무심사 지원
  - 300만원 : 신용등급 7등급 ~ 10등급이면서 긴급 생계자금 필요 신청 시 심사 후 지원
  - 지원내용 : 긴급자금 지원 외 대상자의 사후관리 과정에서 필요로 하는 돌봄, 일자리, 주거 등 사회서비스 지원 및 유관 기관 연계
- 상환방식 : 5년 만기 일시 상환방식

Ⅱ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특성 분석

■ 1차「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신청자 37,252명을 대상으로 분석

○ 1차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지역에서 신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인구 규모 등 지역 여건에 따른 할당 등에 대한 통계적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

- 신청자가 신청서 및 설문조사에 작성한 내용을 중심으로 대상자의 사회적·경제적 특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주요 분석내용은 인구사회학적 요인, 근로 상황, 금융 실태, 대출금의 사용용도 등임

○ 지역별 신청자의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인구 규모와 비례하여 신청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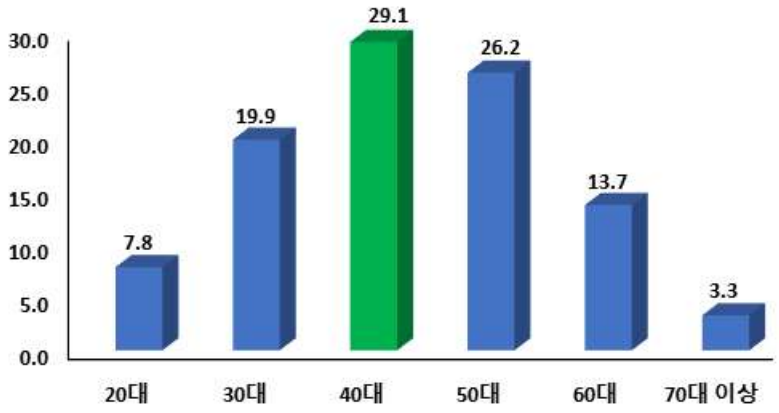
- 양평, 여주, 연천, 가평 등 경기 외곽 지역의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청 및 접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신청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지역별 신청자 분포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의 평균 연령은 47.4세로 나타나고 있으며, 20대의 신청비율도 전체의 7.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50만원 소액대출사업의 신청자 평균연령은 47.3세, 300만원 긴급자금 대출사업의 신청자 평균연령은 47.5세로 분석됨

〈그림 3〉 연령별 분포



- 신청자의 연령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연령층이 낮은 이천, 오산, 평택, 파주 등의 시·군에서 20대의 대출 비율이 경기도 평균(7.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 가평, 연천, 동두천과 같이 인구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는 60대 이상의 대출 비율이 경기도 평균(3.3%)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2〉 지역별 신청자의 연령비중 현황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가평	3.5%	18.8%	23.3%	32.2%	17.3%	5.0%
고양	6.4%	15.6%	26.7%	31.3%	15.6%	4.4%
과천	6.7%	16.7%	23.3%	31.7%	16.7%	5.0%
광명	8.7%	15.2%	32.2%	27.3%	13.6%	3.0%
광주	6.9%	22.5%	33.0%	22.3%	12.9%	2.4%
구리	9.3%	15.7%	27.5%	28.1%	15.7%	3.5%
군포	6.2%	17.8%	30.8%	25.4%	17.0%	2.8%
김포	5.4%	22.7%	34.6%	22.1%	11.9%	3.3%
남양주	7.3%	18.3%	34.1%	25.0%	11.9%	3.4%
동두천	6.3%	16.1%	24.4%	28.6%	17.2%	7.4%
부천	8.4%	23.2%	27.3%	24.9%	13.4%	2.8%
성남	8.6%	17.7%	25.4%	29.1%	16.5%	2.7%
수원	9.3%	21.8%	27.9%	24.6%	14.0%	2.4%
시흥	8.7%	24.9%	29.8%	25.0%	9.5%	2.1%
안산	9.7%	20.7%	26.5%	27.0%	13.2%	2.9%
안성	7.7%	24.3%	32.4%	21.8%	12.4%	1.4%
안양	8.0%	18.3%	25.2%	26.3%	17.9%	4.4%
양주	6.2%	21.1%	32.0%	22.9%	12.8%	5.1%

〈표 2〉 지역별 신청자의 연령비중 현황(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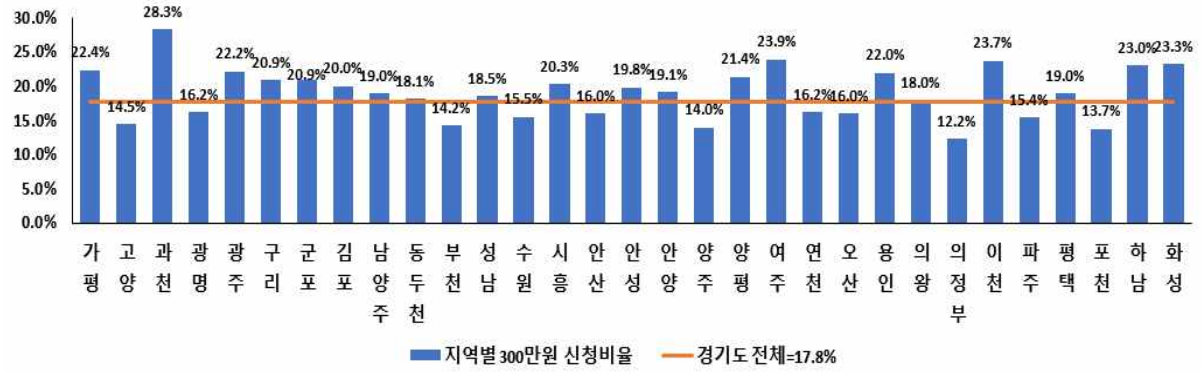
구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양평	4.4%	15.3%	26.2%	30.1%	21.4%	2.6%
여주	6.1%	20.7%	31.8%	25.4%	12.5%	3.6%
연천	6.1%	8.1%	21.8%	33.5%	23.4%	7.1%
오산	14.8%	32.5%	28.9%	16.0%	6.4%	1.4%
용인	7.5%	18.7%	32.7%	25.3%	12.2%	3.6%
의왕	7.3%	13.1%	22.0%	31.8%	20.4%	5.3%
의정부	7.5%	15.9%	26.9%	30.7%	14.6%	4.4%
이천	8.9%	27.3%	26.7%	23.7%	11.9%	1.5%
파주	8.0%	19.6%	31.0%	25.4%	12.6%	3.4%
평택	8.0%	24.3%	30.8%	22.7%	11.5%	2.8%
포천	6.8%	11.6%	26.5%	31.1%	18.7%	5.4%
하남	7.9%	20.1%	28.7%	24.5%	15.4%	3.4%
화성	6.7%	24.2%	34.1%	22.9%	10.1%	2.0%
경기도	7.8%	19.9%	29.1%	26.2%	13.7%	3.3%

■ 신청자 10명 중 8명 이상은 50만원 소액 대출을 신청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대출유형은 50만원과 300만원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 50만원은 소액대출 방식으로 신용등급 조회 및 무심사를 통해 선착순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며, 300만원은 신용등급 조회 및 자격기준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는 방식임
- 50만원의 경우 신청 후 지급 거부율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반면, 300만원은 심사 후 지급이 결정되는 방식으로 지급 거부율이 낮은 50만원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음
- 300만원 대출금액을 신청한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천, 가평, 하남, 화성, 이천, 용인, 여주 등의 시·군은 경기도 평균(1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4〉 지역별 300만원 신청자 비중 분포



- 대출금액의 지역별 신청비율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출금액에 따라 신청한 성별의 차이가 큰 지역은 300만원의 경우 광주, 구리, 부천, 수원, 시흥 등이며, 50만원의 경우 가평, 고양, 광명, 구리, 성남, 수원 등으로 나타남

〈표 3〉 지역별, 성별 신청금액의 신청 비율 현황

구분	가평군		고양시		과천		광명		광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0만원	42.2%	57.8%	55.4%	44.6%	52.9%	47.1%	50.0%	50.0%	57.5%	42.5%
50만원	59.6%	40.4%	56.2%	43.8%	51.2%	48.8%	56.3%	43.8%	53.2%	46.8%
구분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0만원	59.1%	40.9%	57.7%	42.3%	53.7%	46.3%	48.1%	51.9%	41.5%	58.5%
50만원	58.6%	41.4%	56.1%	43.9%	55.4%	44.6%	51.8%	48.2%	52.0%	48.0%
구분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0만원	57.4%	42.6%	54.5%	45.5%	58.3%	41.7%	62.6%	37.4%	58.5%	41.5%
50만원	54.7%	45.3%	61.3%	38.7%	59.6%	40.4%	58.1%	41.9%	57.3%	42.7%
구분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0만원	52.3%	47.7%	57.0%	43.0%	55.9%	44.1%	53.1%	46.9%	55.2%	44.8%
50만원	63.2%	36.8%	56.5%	43.5%	51.4%	48.6%	55.0%	45.0%	62.4%	37.6%
구분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0만원	50.0%	50.0%	58.3%	41.7%	61.6%	38.4%	54.5%	45.5%	56.9%	43.1%
50만원	53.9%	46.1%	55.7%	44.3%	56.2%	43.8%	53.2%	46.8%	54.8%	45.2%
구분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300만원	56.3%	43.8%	56.5%	43.5%	55.6%	44.4%	43.5%	56.5%	63.5%	36.5%
50만원	56.1%	43.9%	52.8%	47.2%	60.1%	39.9%	54.5%	45.5%	56.7%	43.3%
구분	화성									
	남성	여성								
300만원	58.4%	41.6%								
50만원	59.2%	40.8%								

■ 신청자의 근로여건을 살펴보면, 근로활동에 대한 양극화가 심각

○ 신청자의 약 71%는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및 임시직, 기타(프리랜서 등)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청자의 약 29%는 무직, 주부 등 경제활동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지속적·안정적 근로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신청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지급 이후 사후 관리 등을 통한 대상자 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지역별 신청자의 근로상태

구분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기타	무직	주부
가평	29.4%	17.6%	0.0%	17.6%	29.4%	5.9%
고양	42.9%	11.5%	7.7%	10.2%	23.7%	4.1%
과천	50.0%	16.7%	0.0%	16.7%	16.7%	0.0%
광명	41.2%	8.4%	12.6%	7.6%	21.0%	9.2%
광주	33.7%	13.2%	9.6%	13.2%	21.6%	8.6%
구리	35.5%	7.9%	10.5%	14.5%	30.3%	1.3%
군포	35.3%	9.6%	10.7%	13.9%	21.4%	9.1%
김포	33.2%	14.6%	10.0%	14.2%	21.5%	6.4%
남양주	41.5%	14.0%	7.3%	9.6%	21.0%	6.7%
동두천	30.6%	14.3%	2.0%	12.2%	38.8%	2.0%
부천	37.7%	10.4%	9.5%	12.1%	25.6%	4.7%
성남	34.6%	10.5%	12.8%	12.1%	24.5%	5.5%
수원	33.1%	9.8%	10.0%	14.4%	26.2%	6.5%
시흥	39.6%	12.3%	9.6%	11.0%	20.4%	7.0%
안산	47.7%	7.5%	8.1%	6.5%	27.4%	2.8%
안성	36.4%	11.0%	8.3%	12.3%	24.1%	7.9%
안양	50.3%	7.2%	7.2%	13.7%	19.0%	2.6%
양주	48.1%	8.3%	9.8%	9.0%	21.1%	3.8%
양평	36.5%	19.2%	6.7%	16.3%	14.4%	6.7%

〈표 4〉 지역별 신청자의 근로상태(계속)

구분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기타	무직	주부
여주	34.0%	13.2%	11.9%	10.1%	23.9%	6.9%
연천	52.9%	23.5%	0.0%	11.8%	5.9%	5.9%
오산	34.0%	8.5%	10.6%	10.6%	23.7%	12.5%
용인	35.6%	13.8%	10.0%	14.2%	18.3%	8.0%
의왕	26.3%	10.1%	13.1%	11.1%	32.3%	7.1%
의정부	39.9%	12.6%	8.3%	10.1%	25.2%	4.0%
이천	35.1%	11.1%	10.1%	11.1%	25.0%	7.7%
파주	41.0%	9.6%	7.8%	13.3%	22.9%	5.5%
평택	36.5%	12.2%	8.3%	17.4%	17.6%	7.9%
포천	32.8%	17.2%	8.6%	6.9%	32.8%	1.7%
하남	38.3%	14.2%	11.2%	11.9%	19.8%	4.6%
화성	44.0%	9.6%	8.0%	10.5%	22.6%	5.3%
총계	36.9%	11.5%	9.7%	12.7%	22.8%	6.5%

- 특히, 60대 이상의 고령자 대출자의 경우에는 타 연령층에 비해 무직 등의 이유로 대출상환과 관련하여 위험 요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20대도 체계적인 대출상환과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5〉 연령별 신청자의 근로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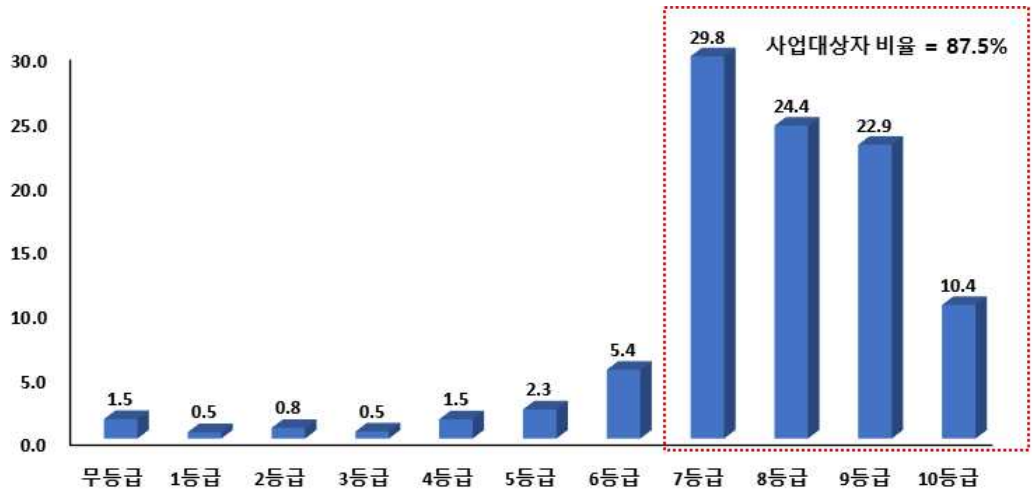
구분	직장인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기타	무직	주부
20대	41.8%	2.8%	17.7%	8.4%	27.0%	2.2%
30대	44.2%	9.1%	8.7%	11.8%	19.3%	7.0%
40대	39.4%	13.3%	8.4%	14.0%	17.7%	7.1%
50대	31.2%	14.7%	9.9%	14.0%	25.1%	5.2%
60대	24.3%	15.0%	8.8%	12.6%	31.2%	8.2%
70대 이상	12.7%	4.4%	6.0%	11.1%	49.6%	16.3%
총계	36.9%	11.5%	9.7%	12.7%	22.8%	6.5%

■ 신청자의 신용등급을 살펴보면, 신용개선을 통한 서민금융지원 혜택 촉진이 필요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의 적격비율은 약 87.5% 수준이고, 이중 약 30%는 신용개선을 통해 서민금융지원의 수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신청자의 약 12.5%는 본 사업의 대상자로 포괄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본인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도출됨
- 신용 7등급의 경우 본 사업을 통해 긴급한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용도를 개선하여 중앙정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필요

〈그림 5〉 신청자의 신용등급별 분포 현황



○ 지역별 신용등급의 분포를 살펴보면, 신용등급의 분포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정책대상자의 7~10등급의 분포를 보면 7등급 오산시, 8등급 여주시, 9등급 과천시, 10등급 과천시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별 대상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하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금융·재무적인 관리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 가능
- 또한, 동일 지역 내에서도 대상자의 신용등급 등을 고려한 신용등급 관리 및 금융·재무 관리 기법적의 적용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6〉 지역별 신청자의 신용등급 분포 현황

구분	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가평군	2.8%	0.9%	4.6%	1.4%	2.3%	2.8%	9.7%	23.0%	23.5%	20.7%	8.3%
고양시	2.2%	0.8%	1.7%	1.1%	2.9%	3.3%	9.0%	25.9%	22.6%	21.2%	9.3%
과천시	5.0%	0.0%	3.3%	0.0%	0.0%	1.7%	3.3%	18.3%	23.3%	30.0%	15.0%
광명시	2.7%	0.3%	0.3%	0.2%	0.5%	1.7%	2.5%	31.4%	24.0%	26.7%	9.6%
광주시	0.3%	0.3%	0.5%	0.2%	0.4%	1.0%	2.4%	32.7%	24.5%	25.3%	12.3%
구리시	1.7%	0.6%	1.2%	0.9%	2.6%	3.2%	8.1%	25.4%	23.0%	25.1%	8.3%
군포시	1.4%	0.2%	0.6%	0.0%	1.4%	1.6%	3.8%	31.6%	23.0%	26.0%	10.4%
김포시	1.0%	0.2%	0.4%	0.3%	0.7%	1.1%	2.4%	35.0%	23.9%	24.0%	11.2%
남양주시	1.9%	0.4%	0.9%	0.6%	2.2%	4.2%	7.3%	29.9%	23.0%	19.7%	9.8%
동두천시	2.3%	2.0%	2.7%	2.0%	4.1%	5.3%	10.6%	19.6%	20.1%	20.8%	10.5%
부천시	1.2%	0.7%	1.0%	0.2%	1.1%	1.6%	3.4%	36.8%	25.4%	19.5%	9.3%
성남시	0.7%	0.3%	0.5%	0.4%	1.3%	1.6%	4.4%	26.9%	26.2%	26.1%	11.7%
수원시	0.4%	0.1%	0.2%	0.3%	0.4%	1.1%	3.0%	30.9%	27.1%	24.9%	11.6%
시흥시	1.8%	0.4%	0.4%	0.6%	1.2%	1.4%	3.8%	33.1%	25.5%	21.8%	9.9%
안산시	2.3%	0.5%	0.9%	0.6%	1.8%	2.3%	5.5%	25.6%	25.6%	24.0%	10.7%
안성시	0.4%	1.0%	0.4%	0.0%	1.2%	2.1%	2.5%	33.2%	27.0%	20.6%	11.5%
안양시	2.2%	0.3%	0.0%	0.2%	0.4%	0.9%	2.0%	28.9%	26.5%	26.6%	12.0%
양주시	0.6%	0.7%	0.3%	0.7%	1.5%	3.1%	7.0%	31.4%	24.7%	20.9%	9.2%
양평군	0.4%	1.3%	0.9%	1.3%	0.9%	2.6%	4.8%	29.3%	21.4%	26.2%	10.9%
여주시	0.7%	0.7%	2.1%	0.4%	1.4%	0.7%	2.8%	28.4%	29.1%	22.1%	11.6%
연천군	2.9%	0.5%	0.5%	0.5%	0.5%	3.8%	6.2%	23.3%	25.2%	25.7%	11.0%
오산시	0.3%	0.0%	0.2%	0.0%	0.3%	0.3%	1.9%	39.1%	19.5%	27.4%	11.1%
용인시	0.4%	0.6%	0.5%	0.3%	1.1%	1.4%	4.1%	33.0%	25.0%	21.7%	11.8%
의왕시	0.8%	0.0%	1.2%	0.0%	1.6%	1.6%	5.7%	30.6%	22.9%	28.2%	7.3%
의정부시	2.8%	0.8%	1.4%	1.1%	3.0%	4.8%	12.0%	25.6%	21.0%	18.9%	8.5%
이천시	0.0%	0.4%	0.2%	0.2%	0.6%	1.7%	3.6%	33.7%	26.5%	21.4%	11.7%
파주시	2.1%	0.5%	1.0%	0.7%	2.1%	3.2%	7.5%	27.6%	23.8%	22.1%	9.4%
평택시	1.7%	0.1%	0.5%	0.2%	0.3%	0.9%	2.2%	30.4%	27.7%	25.9%	10.3%
포천시	3.4%	1.8%	2.2%	1.0%	2.6%	3.8%	9.8%	23.1%	20.9%	21.1%	10.4%
하남시	0.1%	0.4%	0.5%	0.5%	1.7%	2.3%	3.6%	31.8%	23.8%	23.8%	11.3%
화성시	2.5%	0.4%	0.5%	0.7%	0.5%	1.5%	3.3%	33.7%	23.2%	22.0%	11.7%

■ 대출금의 사용 용도는 생활비, 주거비, 기존 대출금 상환 등으로 나타남

○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금을 신청한 비율이 89.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주거비(월세 등 임대료), 기존 대출금 상환, 의료비 활용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 대출금의 사용 용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생활비에 대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20대~40대는 기존 대출금 상환과 주거비(임대료), 50대는 주거비(임대료)와 사업장 운영비, 60대 이상은 주거비(임대료)와 의료비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7〉 연령별 대출금의 사용 용도 현황

구분	사업장 임대료	교육비	기타 비용	기대출 상환	사업장 운영비	생활비	의료비	주거비 임대료	통신비
20대	0.1%	0.2%	0.4%	3.8%	0.7%	91.1%	0.5%	2.2%	1.1%
30대	0.3%	0.3%	0.4%	3.3%	1.3%	90.3%	1.2%	2.5%	0.3%
40대	0.5%	0.7%	0.5%	2.7%	1.6%	90.4%	1.1%	2.4%	0.1%
50대	0.5%	0.8%	0.5%	2.0%	2.5%	88.6%	1.5%	3.3%	0.3%
60대	1.2%	0.3%	0.7%	2.4%	2.4%	85.1%	3.4%	4.4%	0.1%
70대 이상	-	0.3%	1.6%	1.3%	2.2%	83.2%	7.3%	4.1%	-

■ 대출금의 상환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경제활동을 통한 상환이 대부분을 차지

○ 대출금 상환은 전체적으로 근로소득을 통해 상환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사업소득, 기타의 순으로 나타남

- 60대 이상부터 대출금의 상환은 정부지원금을 활용하여 상환하겠다는 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70대 이상에서는 연금소득을 통해 상환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8〉 연령별 대출금의 상환 방법(계획)

구분	근로소득	기타	사업소득	연금소득	용돈	임대소득	정부지원금
20대	89.1%	2.6%	3.2%	-	4.6%	-	0.6%
30대	82.8%	3.6%	9.3%	-	3.0%	-	1.3%
40대	79.8%	4.9%	11.9%	0.3%	1.5%	0.2%	1.3%
50대	75.2%	6.6%	12.2%	0.8%	2.0%	0.1%	3.1%
60대	65.1%	6.4%	11.8%	5.8%	4.1%	0.4%	6.4%
70대 이상	39.0%	11.3%	5.3%	20.9%	11.3%	1.1%	11.0%
경기도 전체	75.7%	5.5%	10.7%	2.1%	3.0%	0.2%	3.0%

- 다만,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만기(5년) 상환 방식이기 때문에 대상자 사후관리와 상환을 위한 역량을 지속적으로 증진시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중간 과정이 생략될 경우, 실제 상환비율이 현저하게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의 특성 분석 시사점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원활한 신청을 위한 거점 및 온라인 체계 구축

- 경기 북부 및 동부 등 경기도 외곽지역(가평군, 연천군, 양평군, 여주시 등)은 공간적 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신청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향후 신청자의 접근성 증진을 위한 접근성이 높은 장소를 거점장소로 지정하여, 신청자의 접근성 및 편의성 확보 필요
- 또한, 방문 접수 방식 외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방식과 병행하여 신청에 대한 부담 완화 및 방문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형태의 병행 필요

○ 대출자금의 다양성 확보를 통해 대상자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탄력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현행 50만원, 300만원으로 설정된 지원 금액은 긴급한 경제적 문제 해결에는 용이하나, 잠재적 경제 문제해결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존재
- 현재 지원 금액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상자의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자금을 탄력적으로 신청 받을 수 있는 체계로의 전환 필요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대상자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필요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자금 지급 이후 상환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고,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동 등으로 인하여 만기상환을 성실히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함
- 대상자의 신청단계부터 상환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
- 또한, 대상자의 자금지원뿐만 아니라 금융·재무 컨설팅 등을 통해 경제적 역량 증진 및 개선 등 사후관리도 시스템 구축을 통해 효율적 관리를 추진

○ 신용등급 관리 등을 통한 기존 서민금융제도와의 연계 강화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중 신용등급 개선 등을 통해 기존 중앙정부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 지원
-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는 신용등급 6등급까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등급 회복을 통해 정책 및 경제적 지원 범위 확대 가능

○ 20대 등 젊은 연령층의 경제적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

-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중 20대·30대의 신청 비율은 약 28% 수준이며 젊은 연령에 대한 조기 금융·재무 역량이 함양되지 않을 경우, 저신용, 개인파산 등 금융 빈곤의 악순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음
- 젊은 연령층의 금융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경제적 역량강화 및 교육 지원 등의 사례관리를 이행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

Ⅲ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개선방안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신청 등 접근성 증진

○ 긴급생활 등의 정책 수요는 31개 시·군에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접근성의 제약 등으로 신청의 제약이 발생

- 양평, 여주, 연천, 가평 등 경기 외곽 지역의 경우 고령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신청 및 접수 장소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신청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경기도 외곽 지역 및 고령자의 인구 비중이 높은 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높은 거점을 중심으로 신청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접수 체계를 개선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 플랫폼(가칭)을 구축하여 젊은 연령층 및 경제활동으로 인한 신청의 제약을 받는 계층에 대한 접근성 향상 필요

- 인터넷 및 스마트 기기의 활용능력이 높은 대상자들은 온라인 신청을 통해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대출자금의 다양성 확보

○ 현행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50만원과 3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신청자의 금융욕구를 해소하기 어려움

- 신청금액의 제약으로 인하여 직면한 경제상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

○ 50만원, 300만원 외 긴급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출의 최대범위를 설정하고, 자격기준 및 심사 기준 등을 적용하여 대출금액의 다양성을 확보

-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경우 긴급생계지원으로 최대 500만원(6인 기준, 최대 3개월)을 지원하는 바, 해당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대출범위를 500만원 범위로 상향 조정 필요

〈표 9〉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가구원수별 지원 기준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 금액(원)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1,685,000

주1) 7인 이상 가구인 경우, 1인 증가 시 227,500원 추가 지원
주2) 최대 3개월까지 지원

■ 대상자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

○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의 중복 신청 및 수혜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극저신용대출사업 자금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의 목적은 도민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부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특정 도민들이 자신의 이익에 맞게 활용하거나 항구적인 대출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아님
- 극저신용대출사업이 보다 효율적으로 도민들에게 배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의 수행기관이 중복지급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

○ 극저신용대출사업 DB 등 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급과정 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상환금 관리의 효율성 확보

- 극저신용대출사업이 집행될 경우 개별 대상자의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이후 대상자의 사례관리 등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DB 구축

■ 대상자의 경제적 자립 및 역량강화 지원

○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중 20대와 30대의 비중도 일정 부분 차지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위기로 인한 빈곤층 전락의 위험을 예방하고 경제적 자립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지원 정책 추진

- 젊은 연령층이 신용등급도 낮은 상태에서 상습적 부채 상황에 노출될 경우, 신용불량, 빈곤층 전락, 경제적 자립 기반 상실 등이 반복되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농후

○ 20대 등 대출자의 경제적 자립 역량을 증진할 수 있는 사후관리와 교육 지원 등의 의무를 부과하여, 경제적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과 역량 증진의 기회 제공

- 금융·재무 컨설팅과 관련 교육 등의 지원을 통해 개인의 경제적 역량을 증진하고, 경제적 자립의 의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 기존 서민금융제도와의 연계성 강화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기존의 서민금융지원체계에서 배제된 계층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여 도민의 빈곤층 전락을 예방하고, 기존 제도의 보완적 역할을 수행

- 기존의 서민금융지원제도는 낮은 신용등급이라고 하더라도 상환과 담보 역량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에 실제 긴급 재원이 필요한 계층을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
- 이로 인하여 도민들이 불법사금융 및 법정 최고금리에 준하는 대출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종국에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

○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들의 소액대출지원뿐만 아니라 체계적 관리를 통해 신용등급을 향상시키고, 기존 서민금융복지제도와의 연계하여 경제적 여건의 개선을 유도

-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가 성실상환 및 조기상환하는 경우 기존 서민금융제도와 연계하여 대출한도 확대, 금리 인센티브 등의 혜택 제공을 통해 경기도민의 금융욕구 해소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참여 규모 및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업 규모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

■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의 단기 소액 자산형성 기반 마련

○ 극저신용대출사업 참여자 중 성실상환 및 근로활동 등을 이해하는 대상자를 선발하여 단기 소액 자산형성 사업 추진 및 참여 유인

- 1년 미만, 300만원 이하 금액의 소액 자산형성을 지원하여 1차로 극저신용대출금액에 대한 상환의 기반을 제공하고, 2차로 기존 서민금융제도 이용을 위한 기반을 제공
- 향후 극저신용대상자를 중심으로 한 소액 자산형성사업 검토·추진

참고문헌

경기도(2020).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추진계획, 경기도 내부자료.

구정한 · 이규복 · 이수진(2016). 정책서민자금 지원제도 개편방안, 금융위원회.

노형식 · 이순호(2014). 금융포용의 개념과 전략과제, 「한국금융연구원」, 2014(5).

박창균(2014).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평가와 정책 방향, 「한국응용경제학회」, 16(2), 65-100.

배준식 · 김범식(2012). 저소득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지원정책 연구, 서울연구원.

위키백과, "미소금융". https://ko.wikipedia.org/wiki/미소금융, (2020.07.01.)

한국금융연구원(2015). 서민금융 총괄기구 설립 및 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은행(2015). 주요국의 서민금융제도, 금융안정국 금융안전연구부 금융제도연구팀.

"[단독] 대부업체에서도 박대당했는데...'서민금융' 사각지대 놓인 低신용자", 「한국경제」, 2019년 10월 8일.

CCAP(2011). Global Standard-Setting Bodies and Financial Inclusion for the Poor: Toward Protectionate Standards and Guidance, A White Paper on behalf of the G-20's Global Partnership for Financial Inclusion.

Wikipedia, s.v. "Microfinance", last modified May 18, 2020 https://en.wikipedia.org/wiki/Microfianance.

경기복지재단 복지이슈 FOCUS 2020-04

경기도 극저신용대출사업 신청자 특성 분석 및 개선방안

발행일 2020년 7월
발행인 진석범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